

# 세계 1위 해상풍력 산업 전진기지 도약 가시화

## 신항에 해상풍력 터빈사 유치 3천억 투자·2027년 양산 목표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친환경 경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목포시의 포부가 가시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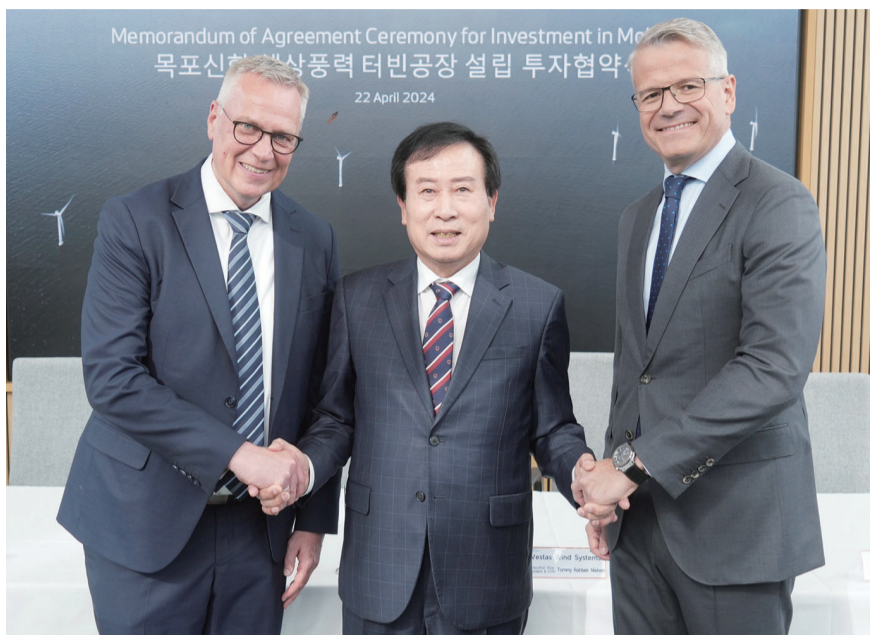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박홍률 시장이 지난 2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이하 베스타스), A.P. 몰러-머스크 A/S(이하 머스크),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목포신항 내 해상풍력 터빈공장 설립 투자협약(MOA)를 체결했다.

그동안 베스타스와 머스크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 신규투자를 위해 목포신항을 비롯한 전남지역을 여러차례 방문해 보유항만시설 및 산업융합화 가능성 등 투자여건을 면밀하게 타진해왔고, 최종적으로 목포시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1위 풍력 터빈제조사인 베스타스와 글로벌 통합물류 기업인 머스크는 3000억원을 공동 투자해 목포 신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 약 6만여평을 확보하고,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공장을 건립, 2027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베스타스는 국내 해상풍력 연관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핵심부품 국산화 등 지역 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 머스크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규 물동량 창출을 통해 목포 신항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박홍률 시장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해상풍력기업이 목포시에 투자를 확정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은 목포시가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목포시가 신항 내 해상풍력 터빈공장 설립 투자협약을 맺었다. 목포시 제공

아니라 전라남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 “목포대 의과대학유치” SNS 릴레이 캠페인

박홍률 시장 첫 주자 송하철 총장 등 지목

목포시가 전남 서부권 34년 숙원사업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이번 챌린지는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개인 SNS에 참여 이유 및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첫 주자로 나선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시민의 34년 숙원! 의대는 국립목포대로!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동참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많은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목포시는 전남 서부권의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역 거점대학인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34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며 “공공의료는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및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과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목포어묵 HACCP 가공공장 사업비 100억 투입 내달 착공

목포시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어묵 가공공장’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목포시는 목포어묵 해협(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가공공장을 오는 5월 중 착공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목포어묵 가공공장에는 하루 최대 6톤 생산이 가능한 대형라인 1대와 중형라인 2대가 설치된다. 중형라인은 하루 1톤 생산이 가능하다.

대양산단에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건립되는 목포어묵 가공공장은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미 활용 어류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인 어묵을 생산, 어가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포어묵은 국내산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원육으로 어묵을 생산하는 만큼 수입산 원육으로 생산되는 타 어묵 제품과는 큰 차별화를 두게 목포=정기찬 기자

## 주택임대차신고제 제도 목포시, 1년 추가 연장 내년 5월말까지 유지

목포시가 5월까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제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제도기간을 종전 5월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는 제도다.

2021년 6월1일 이후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제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오는 31일 제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과태료 수준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제도기간을 1년 연장하게 됐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해상W쇼의 올해 첫 공연이 27일 평화광장에서 개최된다. 목포시 제공

## 야간관광상품 목포해상W쇼, 내일 첫 공연

### 4월·5월·7월·9월 총 4회 ‘춤추는 바다분수’ 재개

목포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인 목포해상W쇼 첫 공연이 27일 개최된다.

올해 목포해상W쇼는 4월, 5월, 7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추석연휴 9월14일까지 4번 진행될 예정이다. 그 중 7월에 예정된 공연은 북항 노을공원에서 진행되며, 7월을 제외한 나머지 공연은 목포 평화광장에서 개최된다.

“W”가 분수모양을 연상시키는 점에서 착안된 목포해상W쇼는 물(Water)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World), 멋진(Wonderful)공연으로 감동(Wow)을 선사하는 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W쇼는 해상무대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공연과 불꽃이 결합된 국내 유일의 특

별하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해상 불꽃쇼로, 지난해 많은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으며, 목포를 넘어 독보적인 대한민국의 야간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작품성과 대중성 향상을 위한 콘서트형 퍼포먼스를 강화했다. 뮤지컬 갈라쇼, 댄스 뮤지컬, 일렉트로닉댄스뮤직(EDM) 공연 등을 통해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공연이 준비 중이다.

27일 진행될 개막 공연은 감성 국악그룹 ‘밴드 이강’의 사전공연으로 관객들의 흥을 돋우고, 주 공연에서는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팬텀오브드 오페라 출연진들이 유명 뮤지컬 작품들로 목포의 밤을 낭만으로 수놓을 예정이다.

이날 공연부터 시설 기능 개선사업으로 한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춤추는 바다분수가 재개돼 11월30일까지 정기공연

을 이어간다.

춤추는 바다분수는 22~26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봄(4월·5월), 가을(9월·11월)에는 화요일·수요일·목요일·일요일 하루 2회(저녁 8시, 8시 30분)가 운영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하루 3회(오후 8시·8시 30분·9시)가 운영된다.

여름철(6월·8월) 공연을 늘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3회(오후 8시 8시 30분, 9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해상W쇼를 목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능개선사업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춤추는 바다분수가 다시 재개됨에 따라 화려하고 멋진 공연을 이어갈 수 있게되어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 지원·육성산업 업종 의결 전남인자위 심의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24일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박태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장, 고창희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2024년도 위원회 사업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사업을 위한 지원산업 58개 및 육성산업 47개 업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노동시장과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산업인력 및 훈련 수요를 조사 분석해 전남지역 인력양성 방향 설정과 훈련 공급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평생직업교육훈련, 지역 인재 양성,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영역에서 정책 및 사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도민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남도를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과 소통, 전남지역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